

불교스카우트 운동 확산되기를

부산 흥법사, 청소년 40명으로 흥법스카우트 발대... 9월 불교연맹 창립 예정

9월 전국불교스카우트연맹 창립을 앞두고, 부산 흥법사에서 지역대인 '흥법스카우트'가 발대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의 대표적 어린이·청소년 포교도량 흥법사(주지 심산)는 4월 10일 대웅보전에서 '흥법스카우트 발대식 및 헌서식'을 갖고, 본격 활동 조입기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서 흥법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10명 등 40명이 흥법스카우트 창립대원이 됐다.

'흥법스카우트'는 흥법사 중·고등부 자모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흥법사 교사불자회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원들은 매월 1회 흥법사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봉사활동에 참가할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스카우트 정신인 모험, 도전, 성취, 재미, 우정의 덕목에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불사

로서의 정신을 접목한 자랑스러운 불교스카우트 대원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는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산하 청소년포교기구로, 9월초 한국스카우트 내 불교연맹의 창립을 목표로 지역대 모집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카우트'는 전 세계 161개 회원국의 300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세계 최대 청소년단체이다. 이웃종교의 경우 이미

2003년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과 2007년 '원불교연맹'을 창립했다. 이들은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가톨릭연맹의 회원은 이미 5000명에 달한다.

진정순 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장은 "7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과 연계한 '불교스카우트 캠퍼'를 개최하고, 9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창립대회 가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침체되었던 청소년 대상 포교활동의 활성화에 좋

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흥법사에서 시작된 불교스카우트 운동이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산하 어린이청소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중심도량 사찰을 우선으로, 희망하는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스카우트희망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문의 (051)508-0345 흥법사, 010-3662-8068 진정순 회장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김상희 대한불교교사대학 교무처장

“어린이불교회관 건립하고 싶다”



없다. 스스로 성실한 삶을 살고 싶어 시작한 일이 어느덧 지금에 이른 것이다.

평생을 고등학교 교사로 살아오던 중 남편의 직장일로 외국에 나가 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귀국 후에도 여전히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았고, 독실한 불자가정에서 자란 탓에 불교계의 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의 교무처장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내민 손을 덩석 잡았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사)동원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범어사 주지)에는 엄부자모(嚴父慈母)가 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와 현 불교계의 세태에 일침을 가하는 김광호(불명 현묵) 부학장이 엄한 아버지라면, 자애로운 어머니는 바로 김상희(불명 용선정) 교무처장이다.

김상희 교무처장은 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에게는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인자한 스승이자,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어린이법회를 이끄는 졸업생들에게는 훌륭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김 교무처장은 4월 9일 오후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열린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입재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해충 스님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지도자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대한불교교사대학 교무처장으로 7년째 교육자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그녀이지만, 상을 받는 일에는 여전히 부끄러움만 하다.

"시상식이 있기 며칠 전 포교원으로 부터 소식을 받고 깜짝 놀라 내뱉은 첫마디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그래요?'였어요.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움과 긴장감이 섞인 모호한 기분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막상 상을 받고 나니 앞으로 더욱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상희 교무처장이 7년 전 대한불교교사대학의 교무처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동기는 특별할 것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가곤 했습니다. 스님들이 예배해 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게 좋아서 자주 왕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자로 성장했지요.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오래 전 경북 상주의 한 포교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가르쳐 준 비구니스님인 정현 스님의 덕분입니다.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평생의 은사로 존경하고 꼭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전국방방곡곡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네요."

그녀가 인생의 은사스님을 그리워하듯, 수 많은 청년불자들과 어머니들이 김상희 교무처장을 그리워하고 있다. 수년 전 김 교무처장이 지도한 어린이들이 훌쩍 자라 대학에 가고, 임원한다며 소식을 전해온다.

최근 김상희 교무처장은 어린이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미술교육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미술 공연 뿐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교육으로 인성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중국 가면극인 '변강'을 배우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 3월 20일 대한불교교사대학 부설 '여선원 어린이청소년불교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추대돼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말이 많은 미래에 '어린이불교회관'을 건립해, 천진불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받은 부처님의 은혜를 어린이와 청소년불자들을 양성하는 일로 회향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기자

“천도재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복전”

부산 불광사, 제주 약천사에서 선상수륙대재 봉행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는 4월 12일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에서 선방부모천도 선상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불광사 신도 350명이 동참해, 11일 저녁 7시 부산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갑판 위에서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익일 아침 6시 제주항에 도착, 서귀포시 약천사(회주 혜인)에서 천도재를 봉행한 뒤 선방산사(주지 벽공)와 관음사(주지 원종)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한밤 중 망망대해를 달리는 설봉호에서 약 2시간 여 이어진 수륙대재가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갑판 위에 모셔진 부처님을 향

해 절을 하고 철야기도를 올리는 등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튿날 오전 약천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대적광전에서 사시예불을 올린 뒤 범음법패의식이 어우러진 천도재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약천사에서는 모든 신도들이 일상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을 권장하는 삼호(三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항상 삼호운동을 되새기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방산 산방사와 조계종 제22교구본사 관음사를 차례로 참배

한 후 2박 3일간의 대장정을 회향했다.

주지 보광 스님은 "생사의 어두운 길은 부처님의 등불을 의지해야만 밝힐 수 있고, 고해의 깊은 파도는 진리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는 것"이라며 "먼저 자신 조상님과 부모님,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이번 천도재를 보살행을 실천하는 복전이라 여기고,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광사는 6~7월경 제주 약천사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아름다운 약천사 도량과 제주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제7회 부산차발골문화제 성료. 제7회 부산차발골문화제가 4월 8-9일 부산 금정산 금강사(주지 혜성) 인근 차발골 일원에서 금강사 신도회 및 선다회 주관으로 성료했다. 주지 혜성 스님은 "금강사를 중심으로 차발골을 조성했으며, 매년 봄 벚화만발한다래를 통해 새로운 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22주년 넘어 깨달음과 회향으로”

부산불교약사회, 제22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약사회(회장 박정주)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4월 9일 지안 스님(前조계종종림승가대학 원장)을 초청해 법문을 들으며 창립의 초발심을 되새겼다.

부처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뜻을 모은 불자 약사들이 만든 단체다. 약사회는 매년 템플스테이와 사



참 순례, 봉사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불교계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이사장 해국) 산하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이 4월 13일 오전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흥제사(주지 성문) 경내에 자리하는 효림원은 대지 4,035㎡, 건물 581.3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4인실 총 28병실과 최신식 의료 및 물리치료 장비, 150인분 조리시설, 목욕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051)807-8300 박지원 기자

부산여성불자회, 제17주년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4월 13일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법당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불자청소년 18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17돌을 맞은 부산여성불자회는 창립당시 55명으로 출발해 현재 108명의 정예회원으로 구성된 부산 대표 여성불자모임이다.

매년 군법당과 신병훈연구소 포교, 부산교도소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포교사각지대의 전면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리이다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평소엔 잘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적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학장

청동불 40여부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